

순천시, '신대천 정비' 재해 예방·힐링 수변도시 조성

해룡면 신대천 정비 연말 준공
폭 확장해 수용력 ↑ 위생 개선
여가·문화 수요 충족 친수공간
인접 공원·산책로 도심 명소화



순천시가 '신대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신대천 정비 조감도.

순천시 제공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하천 범람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신대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한다.

신대천 정비 사업을 통해 단순 하천 확장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시스템 구축을 넘어 도심 속 수변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도시 경관 개선까지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050년 국내 홍수 빈도가 현재 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시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룡면 일대 신대천 정비에 돌입, 오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대천은 3만여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신대지구 내 소하천으로, 폭이 25m로 협소해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상존했다. 또 신대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일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좁은 하천폭으로 유수량이 적어 여름철이면 오수 유입, 악취, 모기 유충과 같은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신대천 1.2km 구간의 하천 폭을 25m에서 40m로 확장해 수용 능력을 높이고, 치수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어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출입 통제 시스템도 구축한다. 스마트 출입 통제 시스템은 기상청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우기 시 자동으로 하천 출입을 통제, 시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비 사업은 하천 본연의 치수, 이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시민 일상 속 여가와 쉼터를 제공하는 도심 속 수변 힐링 공간으로도 조성된다.

하천 주변은 용도에 따라 주거·상업 구역으로 나눠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거지역의 경우 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산책·쉼·힐링에 특화된 고품격 수변 산책로를 조성한다. 반대로 상가 밀집 구간에는 야간경관을 연출해 서울 청계천의 '반포대교달빛무지개분수', 부산 온천천의 '빛의 거리'와 같이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는 도심 속 명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선정된 산림청 주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신대천 주변을 녹지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향토 수종과 미세먼지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점적으로 식재해 2ha 규모의 탄소저장숲을 조성한다. 이로써 폭염·미세먼지·소음 등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친수 공간에 녹지가 어우러진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처럼 신대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높아진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하천 구간과 인접한 공원들을 특색 있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된다.

신대교 옆 공원은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작은 무대와 관람석을 배치해 영국 런던의 '사우스뱅크 센터'와 같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이자 주민들을 위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기적의 놀이터 주변은 여름철이면 물놀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시는 신대천 정비 외에도 육천 재해예방 사업,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을 순천만과 잇는 생태축 확장 사업 등을 통해 물의 생명력이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회복하고 도심의 균형 발전을 가져오면서 도심 하천 정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것처럼, 순천시의 신대천 정비사업이 지방 중소도시의 선진적인 하천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친수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마을방송 체계 구축 가정용 수신기 보급 확대

보성군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12개 읍면에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재난 문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 등 일부 계층은 수신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보편적 재난 전달 수단으로 마을방송 수신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을방송 수신기는 문자 안내보다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며, 문을 닫은 실내에서도 방송 청취가 가능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유용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재난 대응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문덕면과 득량면 전 지역과 추가 신청 가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낮 시간대 주민이 많이 머무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도 수신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도 받는다.

보성=양종수 기자

'청년 동아리·공동체 활성화' 고흥군, 11일까지 참여팀 모집

고흥군이 청년들의 자율 활동과 지역 활동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문화예술취미 동아리'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동일한 취미나 정서를 가진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청년 문화예술 취미 동아리' 참여자를 오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고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18~49세 이하) 단체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청년 간 교류·소통 및 지역 정착 활동을 해야 한다. 청년 문화예술 동아리는 문화·예술·체육, 자원봉사·자기 계발, 사회서비스 지역문제 해결 등의 분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원 2년 차부터는 동아리 활동비(홍보비, 역량 강화, 공연·전시, 체험비 등)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심사 기준은 전년도 동아리 활동 이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활동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익활동 등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아리를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발굴·육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총 5개 팀을 선정해 팀당 600만원의 과업 수행비를 지원하며, 별도로 성과공유회, 워크숍 등 청년 간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청년단체(팀·법인·비영리단체 등)로, 구성원은 5인 이상의 청년(만19~49세 이하)이어야 하며, 그중 60% 이상이 고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신청 서류를 구비해 고흥군청 인구정책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흥군, 비단 들레길 등 '거금 관광 프로젝트' 개막

생태 탐방로 등 착·준공식 개최

고흥군은 지난달 31일 금산면 금의시비공원에서 고흥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거금 비단 들레길과 적대봉 생태 탐방로 착공식과 금의시비공원 전망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제주도를 넘어서는 거금관광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거금도 명품 비단 들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금도 해안 일원 총 51.3km에 데크길, 야자 매트길, 전망대 등을 조성, 예상 사업비는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산면 남해안 해안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들레길이 조성되는 1단계 사업은 익금에서 오천마을까지 6.7km 구간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적대봉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금산면 적대봉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12.2km의 생태 탐방로와 황도 맨발길, 전망대, 데크로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탐방로는 금의시비공원에서 적대봉을 가로질러 흥연삼거리까지 연결되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심신으로 느끼면서

소속도와 녹동향의 수려한 다도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의시비공원 전망대는 국토교통부의 해안 및 내륙 발전 사업으로,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망대와 복합문화공간, 주차장,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금산면은 고흥 관광의 6대 권역 중 하나인 거금 녹동권이 지향하는 해양 친화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누구나 꼭 한번 거닐고 싶은 명품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지난달 24일 물리치료가사가 순천시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 상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일상생활, 건강,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돌봄 시책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3년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순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방문진료, 방문운동지도, 건강식사, 건강식재료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강식사, 건강식재료지원에 건강밀키트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방문운동지도 서비스는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지원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620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격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천년동백축제 개최 5~6일, 옥룡사지 동백숲 일원

광양동백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옥룡면 옥룡사지 동백숲 일원(옥룡면 추산리 424번지)에서 광양천년동백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천년의 숲, 동백꽃 피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5일에는 축제 성공을 희망하는 안전지원제를 시작으로 개회식, 길놀이 공연, 관광객을 위한 즉흥무대, 유명 가수 초청공연(한강, 지원이)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동백숲의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릴 어린이 사생대회 및 백일장 대회도 진행된다.

행사 둘째 날인 6일에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12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백가요제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신나게 해줄 초청공연(황민호, 이정옥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추억의 보물찾기, 도선국사마을체험(떡매치기, 두부·인절미·매실강정만들기, 달고나 뽑기), OX퀴즈, 스토리텔링 화보 및 추억의 사진전, 무료 사진 촬영·인화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광양=안영준 기자